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간 중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나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중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권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2007년 제1차 청지기훈련,

“모두 깨어 일어나 준비합시다!”

주 제 : 그리스도의 교회 (에스겔 34:26) 일 시 : 2월 23일, 금요찬양집회 시

은총으로 통성할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혈이 있기에 매일의 삶이 새롭지만, 우리가 2월을 더 기대하는 것은 사순절과 2007년 제1차 청지기훈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췌”(마 25:7) 신앙을 기다리는 열 명의 처녀들은 다 일어나 준비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기다리며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 다섯 처녀들의 등에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마 25:13)

2007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음성이 준비되었습니다. 제1차 청지기훈련! 이 귀한 시간을 위해 중헌의

청지기들, 바로 복음의 빛인 자 된 모든 성도님들의 온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은 물문이지니와 ‘기름’도 필요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시 46:5) 교구, 지역, 구역,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이 복된 시간을 알려십시오. 2월 23일 저녁,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는 중헌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 신자로 거듭나는 은총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깨어 일어나 준비하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겔 34:26)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을 돌으라! (금요찬양집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려는 우리 안에 항상 투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죄 있는 육신”이라 부른다.(롬 8:3)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매순간 죽어야 함을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1. 죄 있는 육신에 내린 유죄 선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육신은 유죄선고 없이 죽음에 처하여질 수가 없다는 것과 이 유죄선고 안에는 구세주의 죄 없음이 담겨져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죄 있는 육신”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에 유죄선고를 내리셔야 했기 때문이다. 그의 죄 없음은 그의 사역과 또 변화상에서의 모습에서도 광채를 발하였고 지금도 그 빛이 한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요 3:19) 죄인인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 없음 모습 앞에 서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롬 3:23)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사신 그 삶을 기준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정죄하신다.(요 15:2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죄 없음성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을 향하여 죄 있다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죄성을 드러내어 정죄하신다.(요 3:19, 20)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자신을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였다.(빌 3:6) 그러나 그리스도의 불빛을 그의 심령에 비추시고 그의 죄성을 밝히실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롬 7:18~20, 24)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실재적으로 체험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우리의 문제점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2. 죄 있는 육신이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으로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뜻이다.(롬 6:6, 7)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완전히 과거에 행하여진 일로서 단지 자제가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육신이 십자가에 죽은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날을 우리의 죽음의 날로 정하여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말하고 있다.(골 3:3; 롬 6:10) 단번에 죽으심이란 것은 주께서 죄들을 위하여 죽고 또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단 한 번”(Once for all)에 죽으신 것을 말한다. 우리가 그의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통치로부터 놓임을 받은 것이다. 율법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롬 6:14) 그러므로 나는 이제 자유하다.(갈 5:1)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다. 그의 아들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은 현재의 체험이다. 과거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하는 영적 유익인 것이다.(롬 8:13)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마음은 있어야 한다. 주 예수님께 있어 수치를 뜻하는 이 수치(부끄러움)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히 12:2) 모세는 땅아래서 못뿔을 만들어 높이 올려라하였다. 이는 죄의 몸을 예시하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못뿔과 동일시하셨다.(요 3:14, 15; 고후 5:21; 갈 3:13) 이는 신비와 승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육신으로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기에 십자가를 자랑한다.(갈 6:14)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부끄러운 십자가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 희생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히 2:9, 12:2~4; 빌 1:29, 3:10)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는 인내의 증거다.(히 13:13; 갈 6:14)

3. 죄 있는 육신을 도말하심 (Cancellation)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에 내 자신이 확실하게 동의할 때에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죄에서 벗어남을 받았기 때문이다.(롬 6:6, 7) 죄 있는 육신이 죽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때는 먼저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의지하여야 한다.(롬 6:2, 3, 11)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성령께서 그의 영향력을 적용시켜 주시므로써 실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롬 8:13; 고후 13:4)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마귀는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였다.(눅 4:29; 요 8:59)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의 길이 오직 한 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아셨다. 주님은 약함으로 그 자신을 그 험한 십자가에 내어두신 것이다. 그러하여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며 또한 구원의 방법이 되게 하였다.

The most important race in the world

⁽¹⁾Therefore, since we have so great a cloud of witnesses surrounding us, let us also lay aside every encumbrance, and the sin which so easily entangles us, and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²⁾fixing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³⁾For consider Him who has endured such hostility by sinners against Himself, so that you will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 (Hebrews 12:1-3)

The most important race in the world is the race for life. Every human being on the face of this planet is signed up to run in it, but not everybody participates and only a few actually reach the finish line. There is no excuse for not winning this race! It comes with a perfect manual and perfect coach. It is the perfect race, designed by God to lead to the perfect life, where there is no destruction or evil, no suffering, no death, but only perfect joy and peace. This race leads to the Kingdom of God, to the richest life, to eternal life, to a life of living with God. It leads to heaven, the Promised Land, where one can continually worship and praise the Lord in perfect harmony, and receive their inheritance. How can I explain all the wonderful and enormous benefits that come from winning this race? I cannot because the blessings are far too many and way too incredible for words. The race is on my friend, and you need to make sure you are on the right path, headed the right way, and following the right directions. Everybody's pace is different, but the end goal is the same. How's the race going for you? What are you focusing on?

You need to look at past successes. As a Christian, a true believer in Jesus Christ, your feet are already on the right path. This path has been well traveled by fellow believers. If you look, you can see that a great cloud of witnesses surround you. (v. 1) The heroes of faith, Abel, Enoch, Noah, Abraham, Sarah, Isaac, Jacob, Joseph, Moses, and even Rahab, Gideon, Barak, Samson, Jephthah, David, Samuel, and all the prophets, apostles, and followers of Christ who died are watching you. They are looking at you as you run the perfect race. Are you still goofing around or jogging off trail? Noah, by faith, persevered through 100 years of ridicule as he built God's ark, "By faith Noah, being warned by God about things not yet seen, in reverence prepared an ark for the salvation of his household, by which he condemned the world, and became an heir of the righteousness which is according to faith"(Heb. 11:7) Abraham left his family and hometown by faith in obedience to God.(Heb. 11:8-10) "By faith, Moses, when he had grown up, refused to be called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choosing rather to endure ill-treatment with the people of God than to enjoy the passing pleasures of sin, considering the reproach of Christ greater riches than the treasures of Egypt; for he was looking to the reward"(Heb. 11:24-26) Faith kept all these servants of God running. When you look around you will find out that without faith you cannot run the race of life. 1 John 5:4,5 say,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 Who is the one who overcomes the world, but h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You need to look within yourself. As a Christian, a true believer in Jesus Christ, you need to make sure that you stay on course. You must look within yourself. Are you a winner? If you want to win you have to follow the perfect rule: lay aside every encumbrance and the sin which so easily entangles you, and let yourself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you. (v. 1) You cannot win this race by accident or chance. You have to take off or let go of everything or everyone that holds you back from Jesus. In the Bible, the young rich man thought he was running the race pretty well until Jesus asked him to let go of his riches. (Mt. 19:21&22) This guy could not do it. He was so close, but close is not good enough. Those who need to take care of important business more than God's business also cannot enter through the gates of heaven, "No one, after putting his hand to the plow and looking back, is fit for the kingdom of God"(Lk. 9:62) The race of life is on a straight path, not crooked. You cannot stay on course with your eyes looking behind you. To run the race of life you must "lay aside the old self, which is being corrupted in accordance with the lusts of deceit"(Eph. 4:22) The old self is garbage. Your new life in Christ is priceless. 1 Peter 2:11 says, "Beloved, I urge you as aliens and strangers to abstain from fleshly lusts which wage war against the soul." What is destructive to the race? Whatever kinds of things make you not interested in Jesus Christ or that take you away from the Bible are destructive. Whatever slows you down in this Christian race is destructive. Please watch yourself. Lay aside anything that keeps you from God, lay aside anything that harms your testimony. Lay aside anything that keeps you from church or from praying. The weight is not worth the risk of losing the race.

You need to look to Jesus. As a Christian, a true believer in Jesus Christ, you need to make sure that you are following Him. If your eyes are fixed on Jesus, you will have no problems,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has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v. 2) Jesus said,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Mt. 16:24) Jesus ran the perfect race perfectly! He now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He will coach you. He will be with you every single step of the way. Please look up to Jesus; all other men let us down. Jesus never fails. He will give you the strength and courage and comfort that you need to finish this race, "For consider Him who has endured such hostility by sinners against Himself, so that you will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v. 3) Jesus is the perfect example. Follow Him, and Him alone because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Heb. 13:8) Jesus is our example, "For you have been called for this purpose, since Christ also suffered for you, leaving you an example for you to follow in His steps"(1 Pet. 2:21) Like Jesus, when you win, you will have a great reward.

This is the year that Choong Hyun is focusing on building a beautiful church. If you want to build a beautiful church within you, you have to run the race of life by faith and faith alone. You should focus your attention on those who have successfully completed the race, on yourself to make sure you are not carrying anything burdensome, and most importantly on Jesus. Amen. 

다들 주일 설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¹⁾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²⁾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1~3)



김성관 목사

생명을 위한 경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는 생명을 위한 경주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는 그 경주에 참가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경주에 참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실제로 결승점에 도착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경주에서 진 후에는 어떠한 변명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서 완벽한 지침서와 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는 우리를 멸망이나 악, 고통, 죽음이 없는 오직 완전한 기쁨과 평화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최하신 완벽한 경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풍성한 삶,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이끌립니다. 또한 천국, 곧 약속의 땅으로 이끌립니다. 승리한 자는 그곳에서 천상의 화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원히 쉼의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승자에게 주어지는 이 놀랍고 아마아한 은사를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축복은 아주 많고 다양하고 엄청나게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고, 믿음의 길을 향하고 있으며, 믿음의 방향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는 속도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목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경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자들

여러분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라면 이미 여러분의 발은 올바른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길은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 잘 다져진 길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십시오. (1절) 믿음의 사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뿐만 아니라 라합, 기드온, 바락, 사순, 압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과 앞서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제대로 경주에 임하고 있는 지 여러분을 지켜볼 것입니다. 아직도 빈둥거리거나 투덜거리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지을 때 100년 동안 믿음으로 세상의 비웃음을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히 11:7)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친척과 본토 집을 떠났습니다. (히 11:8~10)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좌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히 11:24~26) 이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지탱해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조그만 주위를 살펴보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생명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4,5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써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기 자신을 살펴라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속 사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승자입니까?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규칙을 엄격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모든 장예물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를 가지고 자기 앞에 놓인 길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1절) 아주

우연히 아무 노력도 없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 버리고 그러한 모든 사람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재산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시자 전자가 자신이 아주 경주를 잘하고 있다고 여겼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 19:21,22)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아주 근접했습니다. 그러나 근접한 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역시 천국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손에 쥘 것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 9:62) 생명의 경주는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곧게 뻗어 있는 길을 달리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다보면서 제대로 코스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쏘여지는 구름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엡 4:22) 옛 사람은 버려야 할 배설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얻은 새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11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라 영혼을 거서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방해물입니다. 경주에서 속력을 점점 늦추게 하는 모든 것이 방해물입니다. 반드시 자신을 살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복음 증거에 악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교회와 기도를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들은 경기에서 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행할 자격이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는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경주를 온전케 완주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걷는 동안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실패한 결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힘과 용기와 위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3절) 예수님은 친히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히 13:8)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이 되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여러분이 승리할 때 예수님처럼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교회

올해 중원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 안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말고,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십시오. 매순간 자기 자신을 살펴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십시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2007.1.31.)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하시는가! (빌립보서 1:3~6)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나의 빌립보로 갔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주 장사 무더기(행 16:14,15)가 제공한 거처를 근거지로 하여 실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껏 전하였다. 그러나 귀신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관원에게 붙잡혀 심한 매질을 당한 뒤에 감옥에 갇혔다.(행 16:16~23) 바울과 실리는 감옥 안에서조차 죄사함에 묶여 자유롭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은총을 깨달았기에 그들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말이 편하다”(찬 466장) 고난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리는 기도와 찬송을 시작하였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찬 217장) 이들의 눈에는 자신을 묶고 있는 죄사슬이나 매질로 인한 상처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지냈던 십자가만 보일뿐이었다. 바로 이 때 이들에게 목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행 16:26)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감옥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한다. 그 순간 간수는 놀라운 은총의 복음을 듣는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인의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바로 이 간수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설립된 유럽지역의 최초의 교회이다. 이곳은 은총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가지만 약한 영들은 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지 못하였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이처럼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올바른 행위로 기인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은총으로 베푸신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이다.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골 2:5,7) 그런데 실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 우리는 영성이 되려고 한다. 자신의 열심, 노력,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며 심지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메시지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마 4:17)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원하신다. 천국의 복음, 역사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한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요 1:12) 오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바로 나의 삶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인가? 조금

의 선한 뜻을 찾을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이다.(롬 3:9~13) 십자가를 배움으로 결코 '의'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처럼 죄에 철저히 묶여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곧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며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들도 전년도 가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이 내 몸을 곁 따르소서 내 생명의 주 예수께 바칩니다”(찬 353장) 하나님께서 행하신 좋은 일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된다. 은총과 영원을 깨달으면 자신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이루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사 64:6)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롬 6:23)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요 3:16)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천국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들을 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삶에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히 17:10)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눈물로 회개하자.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은 좋은 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골 1:6)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계속 진행하여 가신다.(골 2:13)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쳐야 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골 3:20) 보혈의 능력과 은총은 죄뿐인 우리의 천한 몸을 예수님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 하신다.(골 3:21)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빌립보 교회를 흔들었던 약한 영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더욱 심령에 깊이 새기자.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 느끼시는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게서 후변하여 세사람 되고 내가 배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찬 208장)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진부함을 내어 드리지. 모든 짐을 주님께 내어 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나는 죄인 중에 과수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이 때 우리는 참 자유와 감사로 충만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거든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름을 받아 주의 은사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찬 514장) 아멘.

충헌의 이웃 사랑, 세워지는 예수님의 교회



김영환 (목로, 봉사위원장)

봉사위원회가 봉사를 하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충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봉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벧전 4:10,11)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각양 온사받은 대로 서로 봉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봉사부서가 있습니다. 구제부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이나 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도우며 십자가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많은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쌀과 사탕, 침낭, 의류 등을 지원하였는데 교회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구호하고 돌아왔습니다.

봉사위원회의 부서 중에서 최근에 활발히 움직이는 자원봉사부가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도 자신의 원하는 봉사시간에 참여할 수 있어서 세대를 넘어서고, 시간을 넘어서서 봉사하고 있

습니다. 자원봉사는 주일 자원봉사팀, 달란트팀, 미화봉사팀, 기도원·동산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 자원봉사는 주일에 본당 112호실에 오시면 누구나 자원봉사 유니폼을 착용하시고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일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화봉사팀은 각 교구별로 19팀을 구성하였고, 본당 및 교회교 예배실과 부속시설물, 각 건물 지하주차장, 교회 내 화장 및 충헌헌산, 충헌기 도원과 주변공간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달란트 봉사팀은 각 성도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서 편집, 전기, 기계, 음악, 영상, 영상, 조정, 조리 등의 분야에서 자신이 배운 기술로 섬길 수 있습니다. 충헌기도원, 충헌헌산팀은 기도원과 동산에 정기적으로 들rum 봉사하고 있는데 정로남들과 교회들도 출산수령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했습니다.(골 2:20~22) 따라서 교회의 모든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윤리적으로 올바른 마음보다는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봉사위원회의 모든 일꾼들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자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에 매 순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봉사를 하며 탄원, “오직 너에게만 이루었도 없고, 너는 무한한 충헌이다”(눅 17:10)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봉사위원회의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

선교와 선교위원회 훈련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들의 훈련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가 하나되고 있다. 이 하나됨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화합이기에 생동감으로 넘친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선교 훈련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복음으로 종말한 선교 열기의 중심에 선교위원회 훈련본과가 그들아 있었다.

훈련본과는?

선교위원회에는 선교를 위한 여러 개의 본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에 관한 모든 훈련을 관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철 장로, 훈련본과장)

훈련본과는는 50여 명의 열광자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장로, 훈련본과부장)

훈련본과가 담당하는 구체적인 사역은?

대표적으로는 CMTC훈련, 1일 수련회, 팀장훈련, 언어훈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교를 위한 모든 훈련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합니다. (이성철 안수집사, 훈련본과부장)

저는 언어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개강'된 언어훈련 강의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전상진 안수집사, 훈련본과부장)



사역을 감당하면서 경험하는 은혜는?

CMTC훈련은 찬양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은 매우 피곤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열광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박옥현 안수집사)

저는 CMTC훈련 시, 청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대학생들이 10여 명 더 있는데 모두 감사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라기보다는 저도 주님의 훈련을 받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경화 자매)

지난 1월에 있었던 1일 수련회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훈련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불행히도 모든 훈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성철 장로)

선교에 있어서 언어는 중요하니까, 따라서 모든 언어훈련은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누군가의 강요에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언어를 배우려는 성도님들이 많았고 있습니다. (전상진 안수집사)

훈련을 받는 분들을 보면 이미 선교지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성철 안수집사)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 또는 영의 통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내가 통역주시는 분이 예수님(빌 4:13)이시기에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전상진 안수집사)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기쁨이 따릅니다. (요일 3:2) 정말 위대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매순간 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송경화 자매)

최근 금요찬양회를 통해서 교만하고 자의의 모습이 더욱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갈 2:20)의 진리를 지극히 가까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항상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이성철 안수집사)

갈릴과 여호사야에게 있었던 믿음(민 13장)이 저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갈 6:14)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신광철 장로)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나의 단락과 길과 주께 예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을 의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는 바울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성철 장로)

훈련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CMTC훈련은 처음 받아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매우 낯선 훈련입니다. (송경화 자매)

가장 쉽게 훈련에 능숙해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더 서둘러 주십시오. (박옥현 안수집사)

언어훈련과 교재를 분할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중히 간직해 주세요. (전상진 안수집사)

아름다운 선교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훈련을 미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광철 장로)

강한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만들어집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훈련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철 장로)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교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은 오직 믿음과 순종이어야 한다. 이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선교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훈련본과와 열광자들을 위하는 간절히 기도하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역이 되게 하소서"(갈 2:20)

(편집국)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

22년 전, 내 살이던 때 저는 작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판도선이 부어 절제를 해야 하는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렇게 복잡한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중에 의사의 실수로 혈관을 잘못 건드려 출혈량이 허용 한계를 벗어나면서 하혈이 모든 훈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성철 장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저는 선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준비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팀원들 전체를 주님은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 팀은 결국 영성심사에서 탈락하였

니다. 그것은 더욱 겸손히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영성심사를 재차 받으며 저는 더욱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바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새벽기도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우리 팀원들도 서서히 변화하였습니다. 팀도민의 참석율도 점차 좋아져서 나중에는 전원 참석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은 영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을 모아 기도하고 간구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파송이 한 달이 채 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팀이 되도록 준비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여 내 자신을 겸손히 내어주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옛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디모데에게 부여하셨던 거룩한 용기와 참된 기쁨으로 저희 팀을 채워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옛날 저희 가정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름 모를 분을 보내셔서 전도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저희 팀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죽어가시는 또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보내실 것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으신 주님이시기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당당히 저와 저희 팀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승규(전남 1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7개 팀)

기 간	팀	팀 장
1월 22일(월) ~ 1월 30일(화)	대학부 6팀	구원식
1월 22일(월) ~ 1월 30일(화)	외선부 1팀	김윤환
1월 22일(월) ~ 1월 30일(화)	직원 1팀	김창진
1월 22일(월) ~ 1월 30일(화)	행정지원부 1팀	박상선
1월 24일(수) ~ 2월 1일(목)	대학부 1팀	이희우
1월 24일(수) ~ 2월 1일(목)	대학부 2팀	최세진
1월 24일(수) ~ 2월 1일(목)	대학부 5팀	김진국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5일(월) ~ 2월 13일(화)	직원 2팀	최준호

정말로 은혜, 은혜입니다!



8년 전,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기 때문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은 기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같은 믿음으로 그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셨고, 정말로 기적같이 남편은 회복되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대의 은혜, 아니 제가 처음 호흡할 때부터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에게 요즘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재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같이 연약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찬양대! 교회 안에 많은 찬양대가 있지만 육신적으로 힘이 없고 나약한 제가 쓰임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감사이고 기쁨이고 정말로 은혜,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남편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을 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니 저의 노년에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눈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눈에 흐르는 눈물은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수 있는 힘의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242장의 찬양처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주님께 서 다시 오실 그 때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 찬양대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박윤석(권사, 예루살렘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는 2007년 1월부터 매주 금요일찬양회의 찬양대로 봉사하고 있다. 이 찬양대의 평균연령은 65세 이상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획한 성을 소망하며 찬양하고 있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계속되길 바란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미디어 관련 일에 종사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겨서 교회학교 교사는 제게 적합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선생님이 계속해서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권면했고,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서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할수록 교회학교 봉사와 영혼 섬기는 일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고 회사 일이 잘 해결되어 마음놓고 교회학교를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대학부에 있을 때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은 있었지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일은 처음이라 무척이나 떨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흑시라도 '나의 말이나 행동 하나로 어린 영혼들이 실족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두려웠고 또 제가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하기에 부족한 것이 드러날까 봐 떨었습니다.

중등부에 가서 몇 주가 흐르고 저와 1년을 함께 할 아이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반에 6명씩 배정되는데 저희 반은 8명이었습니다. 교사로 처음인데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합니다. 학교생활과 교회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다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눈도 잘 맞추지 못하고 대답도 잘 하지 않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실한 친구의 안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신임 교사로서 부족한 저에게

주님은 정말 큰 선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더욱 더 '말이 좋은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예쁘고 기특해서 더 많이 천재하고 싶고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대하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주장하심으로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일 년이 지나고 나면 기도로 학생들을 키운 반과 그렇지 않은 반은 학생들의 신앙 상태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흑시라도 부족한 선생님을만 탓에 귀하고 어린 영혼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두렵지만 우리 반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한 해 동안 중등1부를 섬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김경연(교사, 중등1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때문에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We do not receive things by prayer.

우리는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다.

We receive them by Jesus.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의 대사(ambassador)들은 작은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ambassador)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그 뒤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전권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임받은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여 대표자의 뜻대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ambassadors)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후 5:20)

(편집)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언젠가부터 내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었다. 어느 단계는 넘어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단계에 와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허다하다. 아니 그런 때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하면서 나를 스스로 다독인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저 일에 빠지고 프로그램에 매여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있던 우물들을 불렛 사람들이 흠과 쓰레기로 덮어버려서 우물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내 속에 세상 사랑과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들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멸되어 가는 것들은 다시 회복해야 하고 우물 속에 넣은 흠과 쓰레기들은 치워야 한다. 이런 단계로 돌아가거나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처음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매우 간단하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외적으로

로 보여지는 신앙보다 주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이 내면 절실하게 필요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건 나와 상관없어야 한다. 사탄의 원가도 내면 아무런 가지가 없어야 한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찾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이 목마름이 나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과 나는 한 곳이 없고 주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나는 기도한다.

김언정(집사, 5교구)

새가족부 수요자 간증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



♥ 남편의 직장 상사의 권유로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참 인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절대자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황서영)

♥ 숙부님과 숙모님의 전도로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맘이 편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이 내가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편안한 마음과 금언, 금주하며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떠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희영)

♥ 아는 집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악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권정숙)

♥ 2004년도에 금요찬양집회 참석 후에 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화를 안 내게 되었습니다. (정동리)

♥ 1992년도에 한번 나왔다가 쉬었는데 다시 가족의 권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항상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어서 좋습니다. 교회에서 마주치는 성도님들의 한 안 얼굴이 보기 좋습니다. 신앙 생활을 통하여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백용)

♥ 아는 집사님의 권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틀어 있던 삶에서 주일의 하루는 믿음의 틀에 맞춰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갖게 되어 좋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체계적인 생활을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영호)

♥ 이모님의 전도로 교회에 왔습니다. 늘 제 곁에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죄를 사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좋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영경)

♥ 시누이의 전도로 남편과 아이들이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발길이 닿았습니다. 주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일이면 교회로 오는 발길이 즐겁고 마음이 편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더 부지런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신애)

♥ 직장 선배의 인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인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 세상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님이 성취되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에는 가족과 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배를 위해 주말에는 가능한 한 안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춘숙)

♥ 예수님은 저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계시는데, 늘 온화하고 따뜻한 분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늘 웃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변진진)

(정리: 편집국)

세월 허송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구역장이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한 치마타입니다. ‘저 같이 연약한 사람이 구역장이리요?’ 전 우리 교회 권사님인 시어머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지나친 호의와 쓸데없는 관성에 대해 항상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의 따뜻한 말과 권고에도 10여 년을 방황한 조소와 특유의 뻔질거림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주셨습니다. 2004년 제 몸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때부터 얼음장같이 차갑던 저의 마음을 깨뜨려주시고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또 그전에는 듣기 싫던 울음 섞인 위임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가 진짜인 예수님을 깨닫고 헛되고 짧은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영생을 바라보기를 안타깝게 원하시는 참 사랑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역장으로서 지난 12월 한달 간 구역교재를 통해 작고 낮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는 동안 이제까지의 Merry Christmas가 아닌 Christ(그리스도)를 Mas(경배, 예배)하는 날임을 알게 하시고 구역원들과 그 은혜를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어린 구역장인 저를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구역원들과 함께 연약한 구역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해주시는 믿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아가리라 합니다. 오늘도 가는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빠른 끝을 지날 때 햇빛되게 하소서” 아멘.

정년주(집사, 6교구)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57	안경범	19	청년1부	이영희(15)	178	김상자	9	사랑부	남우정(1)
158	박삼준	19	청년1부	이수예(15)	179	김보라	9	사랑부	남우정(1)
159	오규탁	19	청년1부	조숙예(15)	180	송순애	13	소망부	김예준(13)
160	송옥진	19	대학부	이성선(12)	181	하숙경	9	청년1부	박영순(8)
161	김동현	19	청년1부	전귀환(8)	182	임리나	19	청년1부	김광선(7)
162	무기	19	외선부	최규재(1)	183	고용우	1	청년1부	
163	이병욱	19	청년1부	최순재(18)	184	권오미	1	청년1부	
164	배예리	13	청년2부	배관욱(13)	185	고아라	1	대학부	
165	배미영	13	청년2부	이영준(13)	186	고우리	1	대학부	
166	김경훈	11	청년1부	박성경(11)	187	채희정	9	고등부	
167	강인걸	19	청년1부	박영욱(6)	188	김옥주	10	청년1부	나광영(1)
168	조일성	8	청년3부	박순희(8)	189	박진욱	19	대학부	김주희(19)
169	신동희	2	청년3부	홍한기(18)	190	유현석	19	청년1부	이정주(1)
170	이소현	15	청년1부	남정숙(15)	191	정희진	19	청년1부	박옥순(18)
171	김옥순	18	소망부		192	아노치예	12	외선부	김정희(12)
172	조원	19	외선부	김근애(1)	193	아노시오	12	청년2부	윤옥희(12)
173	한조아름	19	외선부	김근애(1)	194	최정현	2	대학부	김정희(2)
174	다이나	19	외선부		195	김아주	19	대학부	전영희(13)
175	미사	19	외선부	최희술(19)	196	신그리	19	청년1부	송은주(10)
176	지미	19	외선부	유미드(19)	197	이재현	19	대학부	이은진(13)
177	서미애	19	외선부	유미드(19)					

* 중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 1. 정기당회
일 시 : 7월(수), 2부예배 후
장 소 : 당회실
- 2. 안수집사회 월례회
일 시 : 5월(월), 새벽기도회 후
장 소 : 강일리움

별세

- 1. 서성욱 은퇴교사(권시호 성도 - 권택진 권광호의 모친, 10교구 상계4구역, 17교구) / 1월 24일 별세, 26일 장례
- 2. 심재대 집사(최한영 집사 - 최한미 집사의 모친, 박윤소 성도 - 송인진 집사의 장모, 2교구 논현5구역, 8교구) / 1월 27일 별세, 29일 장례

- 3. 이점주 태교성도(류동문 집사의 모친, 김금례 권사의 시어, 12교구 금문중구역) / 1월 29일 별세, 31일 장례
- 4. 정영애 집사(문용근 성도의 모친, 9교구 연곡1구역) / 1월 30일 별세, 2월 1일 장례
- 5. 오재태 안수집사(김화은 권사의 남편, 1교구 한서4구역) / 1월 30일 별세, 2월 1일 장례

결혼

- 1. 이준석 군(이용현 안수집사, 변경심 권사의 아들, 18교구)과 구미나 양(구정철 성도, 김봉일 성도의 딸, 명성교회) / 10월(토) 낮 12시 장림교회 대례당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일 시 : 2월 7일(수), 2부예배 시 장 소 : 본 당

◆총력 교회전도전

여천교회 : 이번 주 7월(수), 1부예배 후,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남전교회 : 이번 주 10월(토), 오후 2시
1자구(1,2,3,4,9교구)-307호 2자구(5,6,7,8,9교구)-307호
3자구(10,11,12,13,14교구)-401호 4자구(15,16,17,18교구)-407호

◆장년1부수련회

일 시 : 2월 10일(토) 14:00~19:00 장 소 : 제1교육관 207호

◆대학부수련회

일 시 : 2월 13일(화)~15일(목) 장 소 : 충현기도원

◆외선부수련회

일 시 : 2월 17일(토)~18일(주일) 장 소 : 제1교육관 307호 외

◆관사리 잔잔연습

1월 21일(주일)~3월 25일(주일), 매주일 오후 3시~4시, 갈릴리움

2월 충현 기도의 창

- 1 2월 23일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을 2007년 제1차 청지기훈련(그리스도의 교회, 절 34:26)을 통하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 2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에게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3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4 1·1·1 전도와 대물림을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전도전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되어 예수님처럼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6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은총의 자녀가 되어서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종인되게 하소서.
- 7 교회에 속한 세대(유아·청소년·부처)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지게 하소서.

교회직원(목회직) 모집			
1.모집부문	경비직	2.학	세례교인, 65세 이하
3.제출서류	자필작성, 주민등록 등본, 당회장 추천서(교인)		
4.서류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사파루	☎ 552-62008내선 403	

충현복지관 직원모집			
1.모집부문	아동교육팀 특수교사(유아·초등)		
2.제출서류	세례교인으로서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학과, 유아교육과 졸업 등 정예머루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		
3.제출서류	이력서(사서봉투), 자격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4.제출서류	2007년 2월 7일(수) 오후 5:00		
5.서류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사파루	☎ 552-62008내선 401	

2007년 제1차 학습·세례식 장소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2월 11일 (대중주일)	12시	성경 개요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15:00~15:50	(해동명 목회)	309호	(영성신 목회)	309호	
	22시	기독교론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2월 18일 (주일)	12시	기독교 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 세례란
	15:00~15:50	(김문호 목회)	309호	(해동명 목회)	309호	(한진식 목회)
	22시	론단	교육관	론단	교육관	309호
2월 25일 (주일)	12시	론단	교육관	론단	교육관	309호
	15:00~16:40					
	22시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찬양예배, 분반)	유아 세례식	유아 세례식	유아 세례식

이번 주 새가족기도할 담당

	5 (월)	6 (화)	7 (수)	8 (목)	9 (금)	10 (토)	11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장승국	안창덕/한현희	나광영/이인수	정진호/김재춘	고광환/김재춘	여국근/최문신	김철규/전은희

예배담당 안내 (2/7-2/11)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2/7	수요 I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 1:29) 김성관 목사	양재용	노준호	어린 양을 보라 (호산나 찬양대)
2/7	수요 II	종일 내 온을 빌었다 (롬 10:14-21) 이희석 목사	유재진	강철형	어린 양을 보라 (호산나 찬양대)
2/9	금요찬양	김성관 목사	전진원	예루살렘 찬양대 / 패시온 찬양회 / 네이 찬양회	
2/11	주일 I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히 12:1-3) 장광구 목사	안창덕	양기주	『예배 전 찬양』
2/11	주일 II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히 12:1-3) 유병희 목사	김진희	이재민	면류관 가지고 외 / 패시온 찬양회(유아부만 오세요)
2/11	주일 III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히 12:1-3) 김성관 목사	장 준	박용국	예수 사랑하신 분이 / 앞도 이만(말씀이 찬양대 호수노드)
2/11	주일 IV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히 12:1-3) 김성관 목사	이정훈	원현율	나 같은 죄인 살리신다 / 사랑은 흠실(전도 오세요)
2/11	주일 V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경주 (히 12:1-3) 이재민 목사	하종철	김준선	예수 나를 위하여 외 / 소리는 조인(말씀 찬양대 호수노드)
2/11	주일완강	세상에 오길 그 선지자 (요 6:1-14) 나광영 목사	이희석	김철환	충현 장로장로회 / 핸드밴드 연주대 / 이번 찬양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성동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찬양집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기도회 집회 안내 (☎ 031-765-5472)

집 회	시 간	차 량
교회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교회집회	저녁 10:30	교회집회 후 본당 앞출발

오전 11시에는 주일 복음에 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교, 오후 1시에는 주일 복음에 있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동유럽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폴란드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루마니아어, 불가리아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루어, 미크로네시아어, 마셜어, 키리바티어, 투valu어, 피지어, 토켈루어, 노루웨이어, 아이슬란드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리스어, 터키어, 아랍어, 히브리어, 유대어, 페르시아어, 우르두어, 힌디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타밀어, 벵골어, 말라얌어, 타갈로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태국어, 라오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파푸아어, 솔로몬어, 투발